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시·도교육청 평가서… 돌봄 등 21개 지표 최우수 평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전북형 늘봄’ 모범 사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3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이는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결과이자,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는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실혁명(디지털 전환) △함께학교(맞

춤형 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지표에서 합격점을 받은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 학력향상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지표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가교육·돌봄 책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AI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조성을 완료하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와 수업 혁신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학생 자살 예방의 체계적 대응, 학교 폭력 근절, 차별 없는 이주 배경학생 지원, 장애 학생 통합교육 및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 효율화 지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전북교육청은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전북형 늘봄’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6

시까지의 학교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의 학교 밖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설계돼 학부모 98%, 학생 97.6%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늘봄 프로그램 우수정책 사례 선정으로 3억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전북교육이 학생 중심, 정책 책임성, 현장 연계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선다는 사명감으로, 교육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전주 효자CGV에서 희망 교직원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공존교육 역량강화 4차 연수를 실시했다.

영화 통한 평화 · 통일의 의미

전북교육청, 교직원 대상 평화공존교육 역량강화 4차 연수
한국전쟁 교아 이야기 담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 관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전주 효자CGV에서 희망 교직원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공존교육 역량강화 4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전쟁 교아 이야기를 담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를 관람한 후,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한국전쟁 교아 1,500명이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져 생활하다 8년 후, 갑작스러운 송환 명령을 받게 되면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이들을 지금까지도 그리워하는 폴란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 속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슴에 남아있는 위대한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두 여정에 추상미 감독과 탐복소녀 이송, 남과 북 두 여자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날 연수는 80분간 영화를 관람한 뒤 관객들이 영화 제작 배경과 영화 속 인물, 감독의 눈으로 보는 남북문

제와 평화 등 궁금증을 질문하고, 감독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배우로 유명한 추상미 씨가 감독을 맡았으며, 이 영화를 통해 여성 감독 최초로 2018년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감대중노벨평화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재민 군산제일고 교사는 “연수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다”며 “관객과 감독이 함께 평화의 눈으로 영화를 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영화 관람과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한반도 분단 현실과 통일의 중요성, 평화가 주는 가치 등을 깊이 공감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분단 역사 및 통일 문제를 탐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우수 교육청’ 선정…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인터뷰

“학력신장·교권보호·책임교육 추진 노력의 결과”

Q.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감격스럽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내걸고 학력신장, 교권보호, 책임교육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교육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모든 정책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위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실 있게 실행해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까지 성과로 인정받은 건 무엇인가요?

- 전북교육청은 4개 영역, 21개 지표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전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지원 강화 △학생 마음 건강 증진 △학교 폭력 근절 노력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수업혁신 등의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늘봄학교 지원강화’가 전국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5억원 외 추가로 3억 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북교육 발전체계 확립에도 의미 있어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내실 있게 실행할 것
모든 사업 우수 성과… 마음건강 증진서 높은 점수”

이는 전북형 돌봄 시스템과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가 전국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Q. 주요 성과로 인정받은 정책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평가는 전북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 성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추한 안전망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목표 아래 초기 대응부터 전문기관 연계 치료, 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및 자살 위험군 학생 조치를 97%, 학생수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위(Wee)플래스 운영,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치유·치료 체계, 대학병원 위탁 병원형 Wee 센터의 패스트트랙 운영 등은 전북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폭력없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따뜻한

학습 만들기’, 또 전북민의 ‘역할극 중심 예방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초·중·고3 전 학년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더불어 AI 디지털 활용 수업 연수를 통해 교원 98%가 연수를 이수해 교실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Q. 전북교육청이 ‘늘봄학교 지원강화’ 우수 정책 사례로도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타 시도에 공유할 만한 사례로 인정받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 전북교육청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형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전일 참여를 목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돌봄 참여율 93.7%, 돌봄 대기 제로화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북형 늘봄’의 특징은 첫째, 거점늘봄센터를 설립해 돌봄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 둘째, 우수 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셋째, (교장) 농악 캠프, (김제) 치유농장 체험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초등학교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34만 4천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전국평균 47만 4천원)을 기록했고, 학부모 98%, 학생 97.6% 등 전국 최고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장은성 기자

미래 향한 새 출발점… 왕궁초, 오늘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재학생 · 동문 등 참석… 미래 비전 모색

왕궁초등학교(교장 박수영)는 5일 학교 강당 일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왕궁초등학교 100주년 위원회가 주관하며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의 지난 100년을 기념하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왕궁초에 따르면 1925년 개교 이래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100주년 행사는 ‘백 년의 뿌리 위에, 천 년의 꿈을 심다’를 주제로 학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념식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

며 교육 공동체로서의 연대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 교장은 “이번 100주년 행사는 왕궁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기념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왕궁초는 학교의 지난 역사를 기록한 ‘왕궁 10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 지역 사회와 함께 걸은 발자취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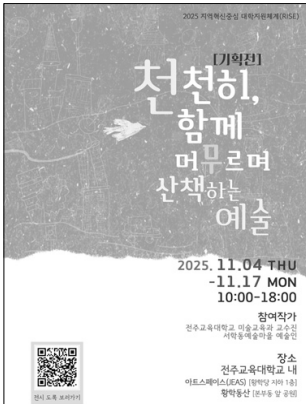
전주대 경영대학
부산금융지구 현장학습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경영대학은 최근 부산금융지구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 역량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학생들은 한국거래소(KRX) 전시관을 찾아 증권·파생상품 시장 운영과 자본시장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으며, KRX 아카데미 이원일 부장의 특강을 통해 금융시장 동향, 투자전략 사례, 자산운용 실무 등을 학습했다. 이어 증권박물관에서 자본시장의 역사와 증권거래의 발전 과정을 체험형 전시로 살펴보고 금융산업의 역할과 금융권 직무·진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김효진 학장은 “금융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금융권 진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천천히, 함께 머무르며 산책하는 미술 감상’

전주교대, 17일까지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협업 전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4~17일까지 황학동산 일원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협업 전시 ‘천천히, 함께 머무르며 x 산책하는 예술’ 기획전을 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가와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일상 속 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기획, 서화 예술가를 작가 50명과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및 강사 6명 등 총 56명이 참여해 ‘천천히, 함께 머무르며 산책하는 미술 감상’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 공간인 아트스페이스(JEAS)와 황학공원 일대는 관람객이 산책하듯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조성,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교육과 정옥희 교수는 “이번 기획전이 예술의 가치와 교육의 역할을 함께 실천하는 교류의 장인 만큼, 전시회의 정체성인 ‘머무르는 감상’이라는 가치가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전시가 지역사회 예술의 울림을 확산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예술가와 교육자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매년 열리는 ‘추계 서화 예술 마을 축제’와 연계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창작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권 대학 연합 창업경진대회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방사선과 3학년 ‘역지사지-Ⅲ’ 팀(김관우, 김지운, 양소천, 임지은)이 지난 3일 개최된 제10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 ‘전북권 대학 연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회째를 맞은 전북 창업대전은 전북권 대학 및 창업유관기관이 참여해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기



획했다. 이 대회에서 ‘역지사지-Ⅲ’ 팀은 ‘동물용 X선 촬영 고정대’를 선보였다.

이 아이템은 동물병원에서 X-ray 촬영 시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스티로폼 지지대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촬영 정확도 향상을 동시에 확보했다. 팀 대표인 김관우 학생은 “타 대학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시야가 넓어졌다”며 “전문위원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